



“지역 위한 인재육성…에너지전문가 1천명 키울 것”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인터뷰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나주를 중심으로 광주·전남을 스마트시티로 만들어 세계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조환익(66)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29일 “세계적 에너지 기업인 한전이 광주·전남지역에서 해야 하는 일은 인재를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사장은 이날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한전 본사에서 진행된 광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전의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철학을 밝혔다. 그는 “지역 대학들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연구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젊은이들의 창업으로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2조원대 에너지신산업펀드를 조성하고, 이 중 창업잡펀드를 조성해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는 계획 등도 소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2012년 적자인 한전을 맡아 지난해 11조 여 억원 영업이익을 냈다. 또한 한전 역사상 세번째 연임한 CEO다.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

—부임초기 적자문제, 밀양송전탑, 세계에너지총회, 무겁고 딱딱하고 폐쇄적인 기업문화, 미래 먹거리에 대한 비전 부족, 본사 나주이전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었다.

당시 한전은 전기 요금을 올리면 흑자가 나고, 인상하지 않으면 적자가 나는 구조였다. 밀양송전탑 뿐만 아니라 세계에너지총회 준비도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뢰를 먼저 회복했다. 밀양에도 직접 40번 넘게 찾아가는 등 신뢰회복에 방점을 뒀다.

특히 구성원들에게 희망을 심었다. 승부근성과 소통으로 패배의식에 젖어있던 직원들에게 유연하고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갖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력위기를 넘기고 에너지신산업분야를 시작하면서 희망이 생겼고 2만명의 직원의 마음을 얻은 것이 가장 큰 성공 비결이다.

▲한전의 해외사업 최근 성과와 향후 계획은.

—한전은 지난 2009년 UAE 원전건설을 포함해서, 2016년 10월말 현재 세계 27개 국가에서 45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5년 해외사업 매출액은 4조9000억원(지분비율 기준)이며, 2025년 해외분야에서 전체 매출액의 20%인 20조원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에미리트원자력공사(ENEC)와 UAE원전 운영사업에 대한 투자계약을 체결해 UAE원전 운영권을 확보했다. UAE원전 운영사업은 UAE 바라카 원전을 향후 60년간 운영하는 사업으로, 한전은 49억달러(한화 54조원)의 안정적인 매출

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출규모 54조원은 자동차 228만대, 휴대폰 약 5200만대의 수출 효과와 같다.

한전은 스마트그리드(SG), 마이크로그리드(MG),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충전인프라(EVC)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높은 기술력과 성공적인 국내 실증을 바탕으로 현재 북미, 중남미, 중동 등 해외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신환경 에너지시스템인 에너지신산업 적극 추진을 통한 에너지효율 향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

대학에 연구비·청년 창업 지원

2조원대 에너지신사업 펀드 조성

27개국 45개사업 4조9천억 매출

북미·중동 등 해외시장 활동 성과

축목표도 달성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

▲에너지밸리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가 크다. 성공 전략과 향후 계획은.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100년을 이어가는 사업이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에너지밸리를 만들어보겠다. 처음 나주로 이전했을 때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여수는 화력, 대구는 섬유 등 국내 산업의 대부분은 집적지가 있는데 에너지 분야는 없다. 한전은 본사 이전을 계기로 국가적인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국내 최초로 에너지특화 클러스터인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까지 500개 기업을 유치하고 에너지 전문인재 1000명을 육성하겠다.

에너지밸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돈을 버는’ 기업, 즉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밸리 나와야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나 혁신기업들이 히트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업체들이 이주해 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광주·전남에서 구상하는 지역사회 기여방법은.

—지역사회 기여의 가장 중요한 점은 기업에서 필요하는 인력양성이다. 산학협력차원에서 인재를 키워서 기업들에 우수한 엔지니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과의 학점연계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현장위주의 기능 인력 양성과정, 고졸디딤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전은 29일 광주소년원에



전기 관련 자격증 취득과정인 ‘빛가람 전기교실’을 개설했다. 이 과정을 수료한 청소년들에게는 한전 입사 과정에 가산점을 줘 기회를 부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한전의 인력양성과정을 통해 배출된 수료생 중 96명은 관련 기업체에 채용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기업참여 등을 활성화 시켜 채용연계 인력의 수를 더욱 늘릴 예정이다.

▲전력시장 개방과 관련 한전의 대책은.

—근본적으로 전력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우리가 키우는게 에너지 신산업이다. 예를들어 앞으로 전기차를 충전하는데 심야에 싸게 충전하고, 비싼 한낮에 되파는 구조도 나올 수 있다. 또 집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생산하고 옆집에 팔고 더 나아가 남는 것은 한전에 팔 수도 있다. 거기에 필요한 설비와 시스템을 만들어 해외에 팔수도 있다.

궁극적으로는 전력시장 환경변화가 고객과 관련업계, 한전 모두의 발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

한전은 환경변화 리스크를 또 다른 기회로 활용하여 항상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에너지 신산업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한전의 기업활동을 위해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 등 지역사회에 바라는 점은.

—나주의 지식클러스터의 경우 초기에는 전략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야 한다. 한전의 소프트웨어 예산을 10배로 늘릴 계획이다. 창업초기 높은 임대료에 부담을 느끼는 업체가 많고, 인허가 문제 탓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지자체에서 이같은 문제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또 정주여건 교육환경의 개선은 혁신도시 발전

국민 부담 완화위해 누진제 개선

취약층 할인혜택도 대폭 확대

행정 지원·정주여건 개선 ‘속제’

돈버는기업나와야 에너지밸리 성공

의 전제조건이다. 지난 9월 기준 가옥동반 나주 이주율은 31.9%로 정제되고 있다. 가장 큰 요인은 교육여건이라고 생각된다. 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옥동반 이주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공립유아원 확충, 자율형 사립고 및 특목고 설립 등 획기적인 유인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계, 지자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지혜를 모아 이주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할 때다. 또한 더 많은 문화시설과 교통인프라 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전기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한전의 입장은.

—한전은 국민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전기요금 체계에서 시대변화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정부, 민간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누진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누진단계와 배율을 대폭 완화하고, 검침일 등 누진제 집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누진제를 기본으로 하되 선택적으로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가겠다.

교육용은 15~20% 할인하고, 다자녀 가구, 출산가구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복지할인은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힘내라 청년들! 광주일보 연중 캠페인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에게 희망을!

소통의정 열린의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구현

의사일정 제218회 정읍시의회(제2차정례회) 2016. 11. 14 ~ 12. 16(33일간)

일시	구분	차수	부의안건
11. 14(월) 10:00	개회식		○ 개회식 (의정실) ○ 시청역별 (14명)
11. 15(화) ~ 11. 18(금)	본회의	1차	1. 제218회 정읍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11. 21(월) ~ 11. 23(수)		4일	○ 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11. 24(목)	본회의	2차	○ 2017년도 예산(안)제안(상정)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시장 및 관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안건처리
11. 25(금)	상임위원회	1일	○ 상임위 활동 —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
11. 28(월) ~ 12. 02(금)	상임위원회	5일	○ 상임위 활동 —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
12. 05(월) ~ 12. 07(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 2017년도 예산안 심사
12. 08(목)	본회의	3차	○ 2016년도 제3회 추경(안)제안(상정) ○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및 조례안 등 안건처리
12. 09(금)	상임위원회	1일	○ 상임위 활동 —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 2017년도 예산안 심사
12. 12(월)	본회의	4차	○ 시장활동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 2017년도 예산안 심사
12. 13(화) ~ 12. 15(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승인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 — 2017년도 예산안 승인
12. 16(금) 10:00	본회의	5차	

【본회의:5일, 행정사무감사:7일, 상임위원회: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6일, 휴일:8일】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정 읍 시 의 회
www.jcc.or.kr